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1호 [루계 제23428호] 주제100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 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 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주규창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리히현동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철훈동지를 비롯한 기업소의 책임임원들, 금속공업성 부상명 송철동지, 환경부도당위원회 비서들인 리히용동지, 염학진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도의 책임임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4개월만에 또다시 맞이한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이날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우리 나라 중공업의 기둥, 우리 경제의 생명선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당당히 맡아 수행해나가고 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날에 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고 무섭게 용을 쓰며 일어나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빛나게 판결함으로써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을 만천하에 힘 있게 과시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간암연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생산실태와 기술개선정형을 구체적으로 조례하시였다.

올해 정초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활돌격에서 김철이 맨 앞장에 서겠다고 굳게 결의다진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린 결과 지난해보다 높아진 매월 철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기업소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

고 출기찬 투쟁을 벌려 주체철옹광로와 원호식련축조피기, 3호가열로를 비롯한 주요생산공정들을 CNC화함으로써 원단위소비기준을 평센 낮추면서도 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하고 또 생산하며 증산하고 또 증산하여 더 많은 철강재로 나라의 중공업과 경공업을 믿음직하게 떠받들고 있을뿐아니라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기업소로 동자들의 로력투쟁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열간암연직장에 새로 꾸려진 CNC화된 고온공기연소가열로를 보시고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맏아들답게 금속공업의 주체화, 혁명화를 실현하며 철강재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고온공기연소가열로가 일떠선 결과 중유를 전혀 쓰지 않고 자체의 용광로에서 나오는 가스를 연료로 마음먹은 대로 강판을 생산해낼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공정에서 놀라운 기술적진보를 이룩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 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력으로 만난을 헤쳐감으로써 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전통적 인구호인 자력갱생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는 열쇠이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필승의 보검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속공업을 발전시켜야 기계제작공업과 기본건설의 장성을 보장할수 있고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금속공업부문이 대고조의 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밀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주체철생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CNC화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며 열간압연뿐아니라 맹간압연공정도 우리식으로 가동시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철강재를 품종별, 규격별로 원만히 보내주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할것없이 생산장성의 근본담보는 주체화를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기고 원료, 자재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원료와 연료의 국산화비중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원료,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같은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련관기업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동력과 원료, 연료를 담당한 발전소와 광산, 탄광들에서 전력파워를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자는것이 우리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김철의 철강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늘의 생산돌격전에서 승리의 열쇠는 지도일군들이 어떻게 근로자들을 생산의 자각적인 열성자, 증산의 주동적인 발기자로 되게 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의 기수들이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처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총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언제나 명심하고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헌신분투하는 그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는 지금 김철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다지고자져온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대고조의 선봉에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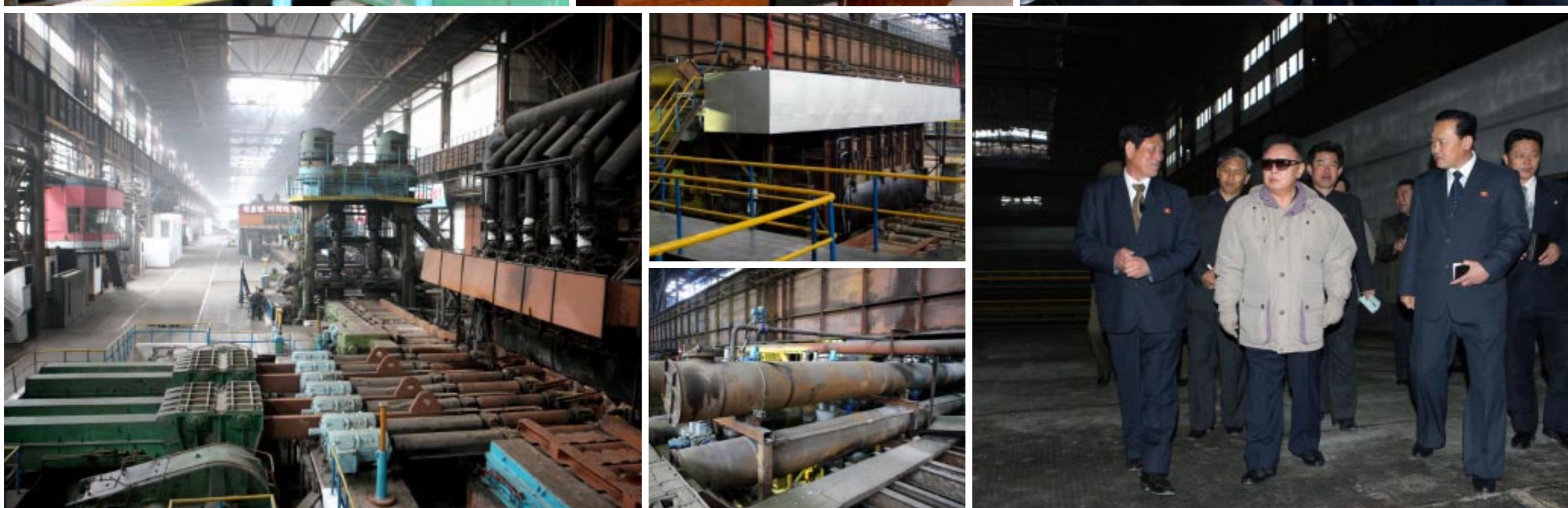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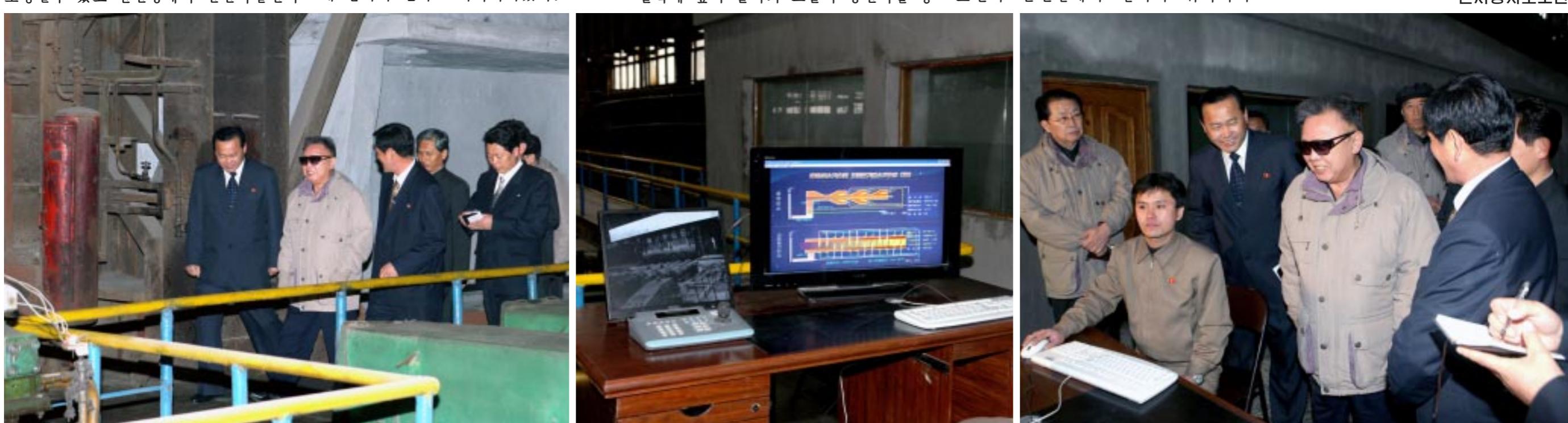
위대한 격동의 시대를 맞이한 전체 인민은 지금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일찌기 없었던 세기적기적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거세찬 비약의 폭풍은 찬란한 미래에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선의 혼연일체가 얼마나 위력하며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다지고자져온 자립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분출하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축성과 사회주의건설에 거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총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이 당시 준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하여 또다시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파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 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허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부장인 주규창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도와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올해에 경공업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며 대한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치켜올리고 있는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고 있다.

수성천기슭에 새로 건설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은 도에서 생산되는 농토산물과 산파일, 산나물을 비롯한 지방원료를 가지고 물엿, 사탕, 파자, 풍우유, 빵, 술, 장침임, 음료 등 각종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식료기공기지이다.

함경북도에서는 삼일포토산물공장과 같은 실리있는 공장을 도들에 건설할때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을 줄기차게 벌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CNC화된 현대적인 식료공장을 도자체의 힘과 기술로 홀륭히 일떠세우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려고 언제나 마모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실현할 불라는 일념을 안고 이ák하게 투쟁하여 공장앞에 달려진 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사탕작업반, 파자작업반, 빵작업반, 술작업반 등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 상태와 생산성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아니라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현대적인 식료가공기지라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공장을 홀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말씀하시였다.

식료가공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아담하고 정결한 작업장들에서 쉬임없이 쏟아지는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을 보시고 질좋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도내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치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는 공장로동계급의 인민에 대한 현신적복무정신을 표시하였다.

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은 자기 지방에서 나오는 원료에 의거한 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되었으며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실리있는 현대적인 식료품생산기지라고 말씀하시였다.

삼일포토산물공장의 모범을 따라 오늘 모든 도들에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들이 일떠서 크게 온을 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감하고 박차고 이ák하게 투쟁하면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공장의 일군들과 파로동자들이 한데 어울려 부르는 량만에 넘친 노래를 들어주시고 우리 로동계급에게 있어서로 통은 곧 노래이고 기쁨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자라난 우리 로동자들의 풍만한 정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제 1 2 차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로동자부류)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노래속에 흥겨운 로동생활의 나날을 위훈으로 빚내여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로동계급들처럼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신념의 강자들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뜨거운 애민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생산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맛좋고 영양가높은 부식물을 비롯한 식료가공식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여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킬때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판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질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식료품의 가지수를 더욱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전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당의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식료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원료와 자체의 재질과 순도, 규격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보장하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는 엄격한 규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공장을 만부하로 돌려자면 기술관리,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으며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원단위 소비기준을 낮추는 것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더욱 꾸고 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조직지휘하는데서 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민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수 있으며 강성국가의 대문이 열려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질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상점매대들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인민들이 그 힘을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거세찬 시대의 숨결에 밀을 맞추어 생산에서 보다 큰 비약을 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애민장정의 길을 이어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헌정으로는 감사의 정에 북받치는 결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어버이장군님의 대해 같은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더 빨리 기당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백두산 3대 장군께 에파도르 볼리바르주 애체안디아시에서 명예시민 칭호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와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용 김정숙동지께 에파도르
볼리바르주 애체안디아시에서
명예시민 칭호를 드리었다.
백두산 3대 장군께 드리는
명예시민증서는 우리 나라 고려
의 학력조단 단장에게 전달되었다.
에파도르에서 시장은 김일성주석
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의
절세의 위인들께 명예시민 칭호를
드리게 된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
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선민주주

인사들과 군중이, 이 나라에서 사업
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고려의 학력조
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백두산 3대 장군께 드리는
명예시민증서는 우리 나라 고려
의 학력조단 단장에게 전달되었다.
에파도르에서 시장은 김일성주석
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의
절세의 위인들께 명예시민 칭호를
드리게 된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
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과의 협선과 협력으로
만족하는 협회 활동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명예시민증서에는 조선의
3대 위인께 조선인민과의 협력으로
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혁명
에 대한 협력성을 강화하려는 불리
바르주 애체안디아시민들의 협력의
표시로 명예시민 칭호를 드린다고
씌여져 있다.

본사기자

4월의 여래

명절에 즐음하여 나라에서 행사 진행

태양절과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18회, 영웅적 조선
민주군 창건 79돐에 즈음하여
네팔, 만마, 체스포, 기네에 서
토론회, 좌담회, 독보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4월부
터 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
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백두산
총대로 빛나는 조국』 등 우리 나
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은 네팔로동자농민당, 네
팔조선친선협회, 네팔선군정치
지회, 만마현령대성발전당, 위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제스코준비위원회,
체스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백두산체스포조선친선협회,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기네 꼬나
크리주체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조선중앙통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선군시대 26호 모범 기대창조운동 대회 진행

선군시대 26호 모범기대창조운
동선구자대회가 2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당의 형도밀에 지
난 기간 26호 모범기대창조운
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최첨단돌파전이 벌
어지고 있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
에 맞게 이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
를 토의하였다.

인민문화궁전 대회장 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와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대회장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
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
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목숨으로
사수하자!』,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
조운동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
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
붙어있었다.

대회에는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와 조병주내각부총리,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26호모범
기대창조운동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위의 일군들, 모범
적인 기대공들, 혁신자들이 참가하
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100 (2011) 년 3월 30일에
발표하신 혁신자적인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
에 맞게 26호 모범기대창조운
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로 발전시킬 때 대하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환호
를 울리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혁신
자적인 로작에 세시된 전투적 업적을
절차히 판월해나갈 의지를 표시하
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의 혁신자적인 로작을 받아안은 전
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는 격정
으로 끓어번지고 있다고 말하
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의 형도밀에 심발할 전되어온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의 정당성
과 생활력을 확증하고 현실발전
의 요구에 맞게 혁신과 생산공
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완화 밝혀주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기술자, 과

제13차 김일성화축전 폐막

태양절을 맞으며 13일에
개막되었던 제13차 김일성화축전
이 폐막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 뿐만 아니라
는 혼모의 마음에 떠받들려 아름다
운 꽃다리를 펼친 이번 축전은
4월의 봄명절을 보다 뜻깊게 기념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불멸의 꽃축
전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이로새기었다.

무역기관, 성, 중앙기판을 비롯한
70여개의 단위와 인민군군인
군인, 청소년 학생들, 해외동포들이
이외교부부, 국제기구부부, 대사관
직원과 함께 축전에 참석하였다.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
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3차 김일성화
축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의 테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手掌에 모실 우리 인민과 전보적인
유대의 한결같은 협력으로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제13차 김일성화축전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제13차 김일성화축전은 온 누리에
만발하는 김일성화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의 테양의 혁사는
영원히 하리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
었다.

폐막식은 20일 김일성화축전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폐막식은 양형철동지와 강능수
내각부총리, 성, 중앙기판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군인, 청소년 학생
들이 참석하였다.

나스리 구스마만 주조 인도네시
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초대
했다.

제13차 김일성화축전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진행된다.

제13차 김일성

당의 원대한 구상을 원통땅에 활짝 꽂피워갈 결사관철의 의지

대동강파수종합농장 확장공사에 동원된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위훈을 창조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 속에 새로 건설되는 대동강파수종합가공공장이 원공의 시각을 가까이 하고 있다.

연평역의 지붕을 없고 회한 한 모습을 자랑하는 덩진자 생 산건물, 현대적인 여러 가지 과일가공설비들에 대한 조립 전투가 마지막 박고비에 이른 제 품생산장, 벅듯하게 건설된 과일보관과 등 새로 일떠선 창조 물들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며 이것이 바로 대혁신, 대비약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꽂피울 한마음으로 공사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은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거창한 건축물을 일떠세우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였다. 그 힘의 원천은 파연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고야 말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품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말 예상치 않았던 강추위가 들이닥친 때였다. 이런 악

조건을 미리 예견하여 시간을 조개가며 총공세를 벌려 냉정한 경포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숨들릴 사이없이 새로운 공격전에 나섰다. 지붕에 대형 트러스를 설치해 하루는 공사는 참으로 빙대하고 아름찼다.

한개의 대형 트러스의 무게만 10여t이나 되었다. 이런 수십개의 대형 트러스설치를 짚은 기간에 끝내어, 겨울철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고 당앞에 맨세다진대로 공사 기일을 어김없이 보장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업조건은 더욱 불리해졌다. 하지만 김성곤소속구분대의 지휘관들은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선군시대의 또

어울리는 것이었다. 종전대로 토막막 트러스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공사기일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통제로 들어 올리자니 기중기의 능력이 모자랐다.

현장에서는 협의회가 열리었다. 그때 한 지휘관이 자리에 차운 것이다.

한개의 대형 트러스의 무게만 10여t이나 되었다. 이런

수십개의 대형 트러스설치를 짚은 기간에 겨울철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고 당앞에 맨세다진대로 공사 기일을 어김없이 보장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업조건은 더욱 불리해졌다. 하지만 김성곤소속구분대의 지휘관들은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서는 파일종합가공공장건설을 맡겨 주시였는데 무엇이 두려 우라.

구분대의 지휘관들은 들판에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쳐왔다.

그리하여 대형 트러스의 조립을 일제우면서 상상되는 죽족 설치하기 위한 힘계정이 떨어졌다. 그때 제일 어려운 문제

로 나선 것은 대형 트러스를 들

참으로 이 투쟁의 날은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 결사관철의 의지로 난관을 강행돌파해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군인건설자들의 심장에 다시금 뜨겁게 새겨준 보람찬 창조의 날이었다.

이런 공격정신은 벽체미장과 탈이불이기, 외장재바르기 전투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겨울철에 이 작업을 내밀지 솔다면 온갖 몇 달을 잊을 수 있는 정황을 놓고 털립종소속 구분대 군인건설자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물을 들을 일세에 때마다 이들의 부대에 훈장을 높여 평가해주시며 영웅

부대, 훈장을 부족한 자체로 마련하여 건설을 다그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

그들 입으로 만년을 창조한 최동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합리적인 지구를 만들여 공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 군관,